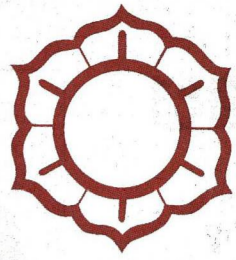


불교종지증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에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종보

2001년  
7월 1일  
일요일  
제26호

公衆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사사로  
운 일에 이용하지 말며, 중생을 이롭게 하  
기 위해 덕을 베풀고 자기의 이익은 취하지  
말라. (宗祖法說集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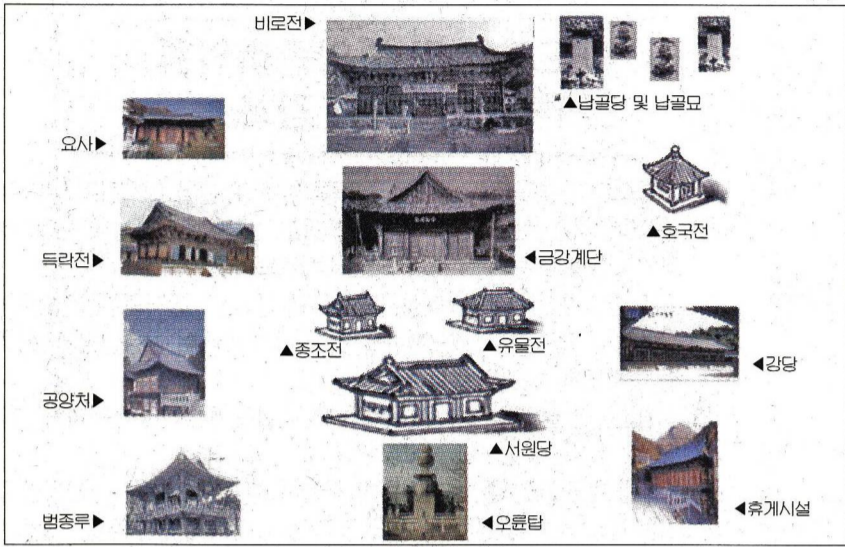
발행인 : 해암 편집주간 : 원송 편집인 : 황희수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 종단 제2도약 위한 힘찬 발걸음

### 10만평에 우뚝설 밀교장엄도량 본산건립 위한 준비



종단 기도도량 가람 배치 예상도

12대 통리원장 취임 일성으로 첫째 법의와 위의를 갖추고, 불단 장엄문제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종단 내부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중생교화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오고 구체화와 두 번째 세월이 갈수록 오탁악세의 혼미속에 불법은 중생들과 멀어져만 가니 중생들의 귀의처인 이 나라 최고의 밀교 진언진지 도량을 건설하여 교화를 활성화하고, 중생들의 가슴속에 밀교진언의 묘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취입사를 발표하였다.

해암통리원장 취임사는 전당건설과 법의 및 위계의 현대화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본산건설과 법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종령님은 자색 법의에 황금색가

사를, 황금색법의에 홍색가사로 했으며, 스승님은 흑색법의에 자색가사를 자색법의에 황금색가사로 색의 변화와 양식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특히 종령님의 법의 황금색은 밀교의 오불가문대 중심불인 비로자나불을 나타내는 색상이며 오색의 중심인 황금색을 종령님의 '법의 색'으로 상징화 하여 배대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홍색의 금가사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가사 색으로 고승대려들이 홍가사를 수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종령님의 금가사로 적합하다고 본다.

스승님은 '밀교장경'에서 설하고 있듯이 천식재 삼장이 송나라 태종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자의를 하사받았던 사실을 좇아서 우리 종단의 아사리 스승

남에게도 그러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부여하였다.

금가사 또한 태장계만다라의 대일여래 종자자인 '아'자와 금강계만다라의 대일여래 종자자인 '밤'자를 새겨 삼보인 스승님들이 공경의 대상이요 부처님의 전법자인 아사리임을 상징화 하였다. 적색의 '아' '밤' '남'자는 '현밀원 통성불심요집'에서 "번뇌망상을 타파하기 위해 등근달과 같은 화륜위에 '남'자를 관한다"는 내용에서 불의 색상인 적색을 종자자의 색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몸 가운데 바로 만다라를 지니고 있어 스승님들의 몸 자체가 바로 만다라요, 또한 양부만다라가 우리 스승님의 몸임을 의인화하였다.

그러나 육합상은 원정종조님이 事相으로 채택하신 만큼 금가사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원정종조님의 높이신 뜻을 계승하기로 하였다. 우리 종단의 본존인 육자진언 다음으로 중요한 진언종자인 '남'자를 육합상안에 넣어 단전부위에 오도록했다.

이는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보면 '남'자관을 행할 때 정법계인의 수인이 아랫배 단전부위에 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남'자와 '육합상'의 문양을 아랫배와 단전에 배대하였다.

'남'자관을 행할 때 정법계인의 수인이 '남'자와 '육합상'의 문양위에 자연스럽게 놓여지게 됨으로써 수행과 위계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10만평위에 펼쳐질 총지종 본산인 밀교장엄도량 금강보궁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후 건립될 본산은 전국 밀교 진언행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올 수 있는 위치를 설정중이다. 특히 본산은 창종주 원

### 삼밀사 주교 제8대 중앙총회의회의 당선

#### 중앙총의회 위상 강화 통한 비판 다짐



대비로자나 본존 앞에서 선서하는 총회의원.

지난 28일 불교종지종 통리원에서는 제 71회 중앙총의회가 있었다. 이번 중앙총의회에서는 8대 중앙총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과 기로원법 개정안건 통과와, 법의 설명, 사원 공사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다. 제 8대 중앙총의회 의장은 의강 삼밀사 주교와 법공 만보사 주교가 총의회 의원에 의해 선출되었다.

의강 중앙총의회 의장은 당선 소감에

"승단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 총의회를 만들어 집행부와 의 원활한 관계속에 종단발전에 초석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중앙총의회 의장 인터뷰 2면)

이날 특정 중령은 법어에서 "총회의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종단 발전과 화합위해 최선을 다해 승단에 모범이 되는 총의원과 중앙총회가 되어달라"고 당부 하였다.

#### 죽비소리

현상 즉시 진리(現象 卽時 眞理)

"무릇 과보(果報)란 속이 익어 겉으로 터지는 것이다." 여기서 과보란 살아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現象)이요 그것은 속에서 모르게 익어(납도, 자신도) 다 익으면 저절로 터지는 것이다.

밀교의 "당상즉도 즉사이진(當相卽道 卽事而眞)"이라는 가르침이 인과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다. 현상이 곧 실제(實際)요 인연소생의 유위의 만법이 감출수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진실이니 천태만상 그대로 다 진리인 것이다.

법등 (총지사 주교)

### 11회 여름학생 수련대회

#### 괴산수련원에서 심신단련 통한 화합 단결

오는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2회에 걸쳐 총지종 괴산수련원에서 제 7회 여름어린이 수련대회와 제11회 여름학생 수련대회가 "즐거운 총지종·함께하는 총지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수련대회는 정기적인 수행과 함께 신행놀이를 통해 불교를 즐겁게 배

우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불교적 인연을 배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신나고 즐거운 수련대회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수련회 참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대회 준비를 맡고 있는 하경목 교무

는 "해마다 수련대회에 참여인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종단의 보다 각별한 관심을 바라며 올해는 수련장의 시설미비 및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인근 화양계곡에서 레프팅(보트타기)으로 모험심과 화합의 정신을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장애체험을 통해서 장애에 인한 불편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創造革新 跳躍

##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 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 고객을 제일로 삼겠습니다
- 전통기술과 신기술을 함께하여
-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땀 흘리겠습니다

• 고객제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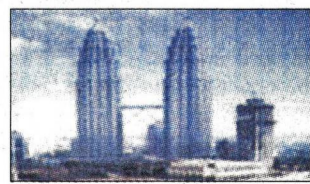
• 환경우선



• 전통한식기술



• 앞선 신기술



• 인정받는 기업



德陽建設株式會社 대표이사 李相斗

본 사 : 경남 진주시 상평동 211-20번지 전화 : (055)759-4267 FAX : (055)759-4269 E-mail: dyks@chollian.net  
부산사무소 : 부산시 진구 범천동 854-9번지 전화 : (051)643-2261 FAX : (051)643-2055 E-mail: nocya@netsgo.com



# 사설

## 화합이 아름다운 이유

부처님 입멸 후 100년 후부터 800여 년 간 지속됐던 아비달마(부파) 불교의 교학은 대승불교나 소승불교의 교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불교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부파불교를 자신의 해탈만을 위해 대립과 갈등을 야기한 것처럼 평하기도 한다. 물론 불교가 자비의 정신에 입각한 화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부처님이 입멸하시고 2천5백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승단의 화합만을 내세우던 그때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 불교는 처해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불교는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불교가 발생하고 그것이 더 발전하여 승가에 조직을 갖추는 종파불교가 탄생하였고 중국불교를 받아들인 한국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다.

종파라는 것은 결국 조직이다. 개인과 개인이 모인 조직 그 내부에는 항상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갈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교는 화합을 앞세운다.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인 마르크스는 갈등은 그 조직이나 사회를 이끌어 가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은 대립을 낳고 그 대립의 해결을 위해 서로의 조그만 양보로부터 시작하여 서로에게 공동되는 것과 서로를 위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립은 해소되고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조직이나 사회는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갈등은 항상 존재하며 또한 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설이다.

사건적 의미로 갈등은 서로 모순되는 견해, 처지, 이해의 차이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관계라 정의되어 있다. 어느 사회이건 어느 조직이건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조직에는 견해와 이해의 차이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그 견해와 이해의 차이를 발전의 모태로 삼아 조율하고 화합하는 조직은 더욱 융창하여 발전하였고, 견해와 이해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한 조직은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속에서 슬허하게 보아 왔다.

화합이란 "서로 자주 모여 상대방의 의견과 이견을 조율하여 바른 정의를 내오는 것이며, 상하가 화동하여 서로 공경하고 순종해 어기지 않은 순리이며,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법을 받들어 금기한 바를 알고 그 제도를 어기지 않음이며, 힘써 많은 스승과 벗들을 보호하고 공경함이며, 바른생각을 견지하며 후도와 공경을 으뜸으로 삼고, 음욕을 떠난 깨끗한 범행을 닦고 본능에 따르지 않음이며, 남을 먼저하고 나를 뒤로하여 이름과 이익을 탐하지 않음이다" 라고 부처님은 장아함 유행경에 밝혔다.

화합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비의 정신을 기반으로 견해와 이해의 차이, 모순의 극복을 위한 최상의 해법을 제시 해주기 때문이다. 종단발전의 다양한 의견과 이견 또한 마찬가지다. 화합을 빙자한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사장되거나, 반대로 화합을 거스리는 건강한 의견과 이견이 아닌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위임에 분명하다. 화합의 아름다운 연꽃위에 종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 인터넷포교의 중요성

며칠 전 총지사 스승님의 관심 속에 총지사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일선 사원에서 사이버 포교의 포문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총지사: http://chongjisa.hihome.com)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은 신세대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남녀노소의 인터넷사용(인구비율당)과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의 최고이다.

교회의 손길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종단과 사찰들이 사이버 포교에 중점을 두고 홍보와 서비스에 힘을 쓰고 있다. 본 종단도 몇 해 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와 포교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교회화하는 스승님들의 노후가 인터넷을 통해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 있다. 이제 단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에서 탈피 할 때가 온 것이다. 발전된 기술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일들을 사이버 세상에서 가능케 하고 있다. 인터넷이 이미 생활이 된 만큼 포교의 방향도 다변화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단위 사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종단 홈페이지와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콘텐츠(내용)도 개발해야 될 것이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아니 무시할 수 없는 무한의 땅에서 이제 포교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인터넷은 생활이기 때문이다.

## 혜암 총리원장 BBS "길을 찾아서" 출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스승으로 남고자



지난 24일 7시10분부터 약 50여분의 창종이념, 역사, 소의경전, 수행 동안 혜암총리원장은 불교방송 "길을 찾아서"에 출연하여 불교총지중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혜암 총리원장은 이 자리에서 임기중 중점사업으로 전입 총리원장이 추진하였던 금강계, 태장계 양부 만다라 조성불사완성과, 만다라도전완성 그리고 종단의 제2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으로 추진중인 밀교의 교상과 사상을 바탕으로 건립될 본산도량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종단의 선후배의 서열 구조속에서 선배로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이 앞서며, 후배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 선각자로서 후대들이 험난한 길을 편히 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 하반기 49일 불공회향일 방생법회로 이어져

### 각교구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호 중심 방생법회 열릴듯

방생은 불교의 교리와 수행에 있어서 자비라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반영하는 행위로 불상생계의 적극적인 실천덕목이다.

오는 7월16일 각 교구별 방생법회가 개최된다.

총지종단은 매년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에 맞춰 물고기의 하천 방생을 중심으로 한 방생법회를 개최하였으나 생태계 보호와 먹이사슬의 파괴로 인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인공방생을 중심으로 방생법회를 개최하였다.

몇해 전부터 인공방생을 시행해 온 서울 경인교구는 방생법회를 개최하며 대구 경북지구는 경북청송, 부산 경남교구는 거제도에서 친환경적인 방생법회가 이어진다.

이번 방생은 인공방생의 개념을 한차원 발전시켜서 하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하천 주변 정리, 오염정화, 하천 살리기 등의 활동을 새로운 형태의 방생 행위와 방생의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와

방생의 대상을 새, 나무, 숲, 자연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방생의 방법도 살려주기, 치료해 주기, 먹이 주기, 환경정화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입각한 방생법회가 될 것이다.

재단사무국장 인선정사는 "이번 방생은 과거방생의 틀을 발전시켜 새로운 전형의 개발, 불교 총지종만의 독특한 방생법회를 창조하는 시초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제2회 국내 거주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2001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국내에 있는 국제포교사와 국제포교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제2회 국제거주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을 실시한다.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은 2000년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홍보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전파하는 민간교역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포교사를 대상으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국문화와 불교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불교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강의시간을 분산하는 등 제1회 프로그램 평가에 의해 많은 변화가 있다.

이번 행사에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원불교 국제포교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총지종에서도 윤승호, 김용주, 박재걸, 김홍배 교구가 참여할 예정이다.

## 총지사 홈페이지 개설

### 가용극복 은정 조선일보사에 성금전달



지난 가뭄에 온 나라가 물 걱정이 한창이었다. 온 국민이 하나되어 가뭄극복에 은정의 손길을 보냈다. 불교총지중 총지사(주교 법등)도 교도들의 따뜻한 온정이 쏟아져 물 걱정의 농심에 함께하였다.

6월 월초불공에 교도들의 자발적으로 모인 성금 20만3천원을 지난 12일 조선일보사를 통해 성금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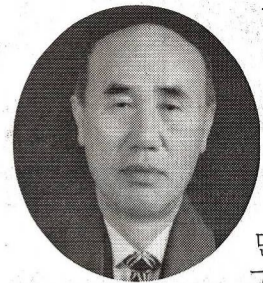
한편 지난 18일 총지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인터넷 포교의 장을 열었다.

법주님의 밤샘작업으로 개설된 홈페이지는 주교법어, 신정회 소식, 행사소식 및 게시판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총지종의 소의 경전 및 밀교와 진언연승등 다양한 콘텐츠(내용)를 마련하였다.

총지중 사원중 최초로 개설된 홈페이지는 타 종단의 인터넷 포교보다 한참 늦었으나 총지종도 인터넷 포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의 시초가 되었다.

총지사 홈페이지 주소는 chongjisa.hihome.com이다.

## 중앙총의회 의장 인터뷰



7대 중앙 총의회 의장직임에 이어 8대 의장에 당선되셨는데 당선소감은

우선 총령님과 과중한 업무를 맡겨주신 총의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승단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활기차고 화합된 총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대 의장은 잔여임기 1년의 활동으로 업무과약이 제대로 할수 없었다는 제한이 있었으며 계획성 있게 활동을 못한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앞으로 8대 중앙 총의회를 이끌 계획은 이번 8대 중앙 총의회 의원들의 선출을 보면 젊은 초선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젊은 초선의원을 많이 선출시켜 주신 의미는 보다 활기차고 활발한 총의회 역할을 부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도개선 및 중앙총의회원 연구독려로 위상 강화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중앙총의회 역할을 강화하여 종단의 행정집행부위를 도울 것은 과감하게 돕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히 비판을 하는 총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종주이신 원정 대성사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의 근부취지를 살리면서 그 안에서 제도개선을 하여 법과 조직이 융통성있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중앙 총의회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회(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 국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총의회도 한 종단의 합의회 기구로 종단의 행정에 도움과 견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중앙총의회 역할이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종단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출발! 전국 신정회 중앙회 힘찬 발걸음 대구 개천사에서 중앙회 회칙 심의 및 전국 대의원 총회 일정 잡혀



지난 6월 12일 대구 개천사에서 전국 신정회 중앙회(회장 밀성관)가 열렸다. 회칙전문과 교도 맹약은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 회칙 및

## 교도 맹약

1. 우리는 법신불의 근본 교리를 체득하여 즉신성불의 윤회대도를 인격위에 구원하려 한다. (불타의 정신전개)
2. 우리는 위로 불지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생활불교의 선구자가 되려한다. (실천봉사)
3. 우리는 안으로 삼보를 수호하고 밖으로 대중불교를 건설하려 한다. (실천생활불교 전개이력)
4. 청신한 불교조직을 강화한다. (신도단결)
5. 생활불교운동으로 전국민을 불타사상 계도에 선봉이 되어 밀엄국토 건설을 위해 용맹정진한다. (자비 단결/ 불국정도이력)

# 즐거운 총지중·함께하는 총지중



## 총지중 여름학생 수련대회

### 1. 여름 어린이 수련대회

- 기 간: 2001년 7월 23일~25일
- 장 소: 충북 괴산 수련원
- 대 상: 전국 사원 어린이
- 참가비: 2만원

### 2. 여름 학생 수련대회

- 기 간: 2001년 7월 25일~27일
- 장 소: 충북 괴산 수련원
- 대 상: 청소년
- 참가비: 2만원

## 주요 프로그램

- 입제식, 신행놀이, 레프팅, 참선
- 조별장기자랑, 캠프파이어
- 장애체험, 내나무 이름표달기 등

## 불교총지중 총리원장 혜암



이기성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여러가지 수인, 지물

시무외인(施無畏印, Abhaya-mudra)

중생에게 무의(無畏)를 베풀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을 없애주는 자비의 덕을 나타내는 수인이다. 이 수인에 관해서는 법구비유경(法句比丘經)을 비롯하여 아비타비사론(阿毘曇婆沙論), 대비사론(大毘婆沙論) 등에 실려져 있다. 그 내용은 석가여래께서 왕 사상에 계시 때 데다부터가 아사세왕을 유혹하여 모략을 꾸며 부처님을 성 안으로 초대하게 하였다. 그 모략이란 코끼리에 술을 먹여 날뛰게 하여 부처님을 커다란 코끼리의 발에 밟아 죽이려고 못한 괴를 낸 것이다. 술에 취해 달려드는 코끼리를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다섯 손가락을 펴보이셨다. 그러자 날뛰던 코끼리는 그 자리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이를 불전문학(佛傳文學)에서는 '취상조복(醉像調伏)'이라 이름하고 있다.

시무외인의 손가집은 다섯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위로 뻗치고 손바닥을 밖으로 내보여 어깨까지 들어올린 모습이다.

여원인(與願印, Varada-mudra)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중생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덕을 드러낸 수인으로 시여인(施與印), 시원인(施願印), 민원인(滿願印)이라고도 한다. 손가집을 보면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손가락을 가지런히 펴서 아래를 향하여 손 전체를 늘어뜨린다. 시무외인과 거의 반대의 모습이다.

이 수인은 다른 수인과 달리 부처님께서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연유로 이 수인을 취하셨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시무외인과 여원인이 두 가지 수인은 우리 나라 삼국시대 불상에서는 존명(尊名)과는 관계없이 두루 이 수인을 취하고 있어 통인(通印)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특히 여원인에 서는 밑을 향한 다섯 손가락 가운데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구부린 형식을 지닌 불상이 많아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천지인(天地印)

지금까지 석가여래와 관련된 근본오인(根本五印)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석가여래와 관련하여 탄생불이 취하는 수인으로 천지인(天地印)을 덧붙일 수 있었다.

실달타 태자가 탄생하자 먼저 천안으로 사방을 돌아보고 모든 국토와 온갖 생물을 죄다 살펴본다. 그리고 지계와 선정과 지혜 그리고 선근에 있어서 자기만한 경지에 도달한 이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사자후를 토한 뒤 동·서·남·북·상·하의 육방(六方)을 향해 각기 일곱 걸음씩 내딛자 그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난다. 천지인은 바로 이 장면을 상징하는 수인이다. 우리가 부처님오신날 관불의식(灌佛儀式)에서 빙는 탄생불이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내려 땅을 가리키는 모습에서 이 수인을 볼 수 있다.

지권인(智拳印, Jnana-musti-mudra)

비로자나불이 맺는 수인이다. 우선 손가집을 보자. 왼손과 오른손을 각각 엄지 손가락 속에 넣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 주먹을 쥐다. 다음에 왼손을 가슴에 올려 들고 집게손가락을 풀어서 곧게 세운다. 이어 주먹 권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으로 곧게 세운 왼손 집게손가락의 첫째

마디를 감싸 잡는다. 이때 왼손 집게손가락 끝과 주먹 권 오른손 엄지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댄다.

이러한 손모양은 일체의 무명 번뇌를 없애고 지혜를 얻는다는 뜻, 또는 이(理)와 지(智)는 둘이 아니며, 부처와 중생은 본래 동일하며 미혹함과 깨달음도 본디 하나라는 뜻이라 한다.

미타정인(彌陀定印)

미타정인은 아미타여래의 수인으로 묘관찰지정인(妙觀察智定印)이라고도 한다. 아미타여래의 수인은 아미타 사십팔대원(四十八大願)만큼 그 종류도 많은데 우리 나라에서는 미타정인만 볼 수 있다. 미타정인은 구품인(九品印)이라고도 한다. 구품이란 아미타여래의 정토인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사람들은 그의 행업(行業)이 깊고 얕음에 따라 삼품·중품·하품의 세 부류로 구별하고, 다시 이 삼품은 각각 상·중·하의 삼생(三生)이 있어 모두 구품(九品)으로 나뉜다. 이렇게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각각의 무리에 상응한 아미타여래의 자비의 모습을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 아미타정인이다.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는 태극기이고 나라꽃은 무궁화이다. 나라마다 국기와 국화 그리고 국가를 제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갖도록 한다. 사실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에서 우승하여 애국가가 연주되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광경을 볼 때 시상대에 선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우리도 정한 감정의 폭발점을 느끼곤 한다. 이렇듯 국기는 그 나라를 표상하며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북돋는다. 불교에서 관음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존상들이 손에 어떤 기물을 들고 있는 것을 일러 지물(持物)이라 한다. 이들 지물

지물(持物)

은 각각 보살이나 호법신중들이 중생을 제도하고 불법을 지키기 위한 각자의 깨달음(이를 自內證이라 함), 자기의 다짐(本誓), 자기의 바람(本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살들의 몸에 화려한 치레 곧 영락장엄(瓔珞莊嚴)을 하는 것은 바로 중생제도를 위한 수행공덕이 마치 아름다운 구슬이 영롱하게 반짝이듯 보살의 몸 밖으로 빛남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대원본존(大願本尊) 지장보살이 한 손에는 석장과 다른 한 손에는 마니보주를 지닌 것은 지옥문을 깨뜨리고 지옥의 어둠을 밝게 비추어 지옥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지장보살의 바람을 상징하고 있다. 문수보살이 지닌 칼은 무명을 베는 지혜를 상징하며, 관음보살이 지닌 정병(淨瓶)은 중생의 목마름을 달래주는 불사의 영약 곧 감로수(甘露水)를 담고 있다. 경전에 나타난 지물의 종류는 대단히 많고 그 지물을 갖고 맺는 인상(印相) 곧 계인(契印)의 종류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다. 게다가 우리 나라를 포함한 한역경전(漢譯經典)에 속하는 지역은 동일한 원어(原語)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표기가 있고 또 그 번역어 해당하는 자기 나라의 물건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여 본토인 인도와 차별된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이들 지물을 지니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직접 손으로 잡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연꽃 위에 지물을 얹어 놓고 그 연꽃줄기를 손으로 잡는 방법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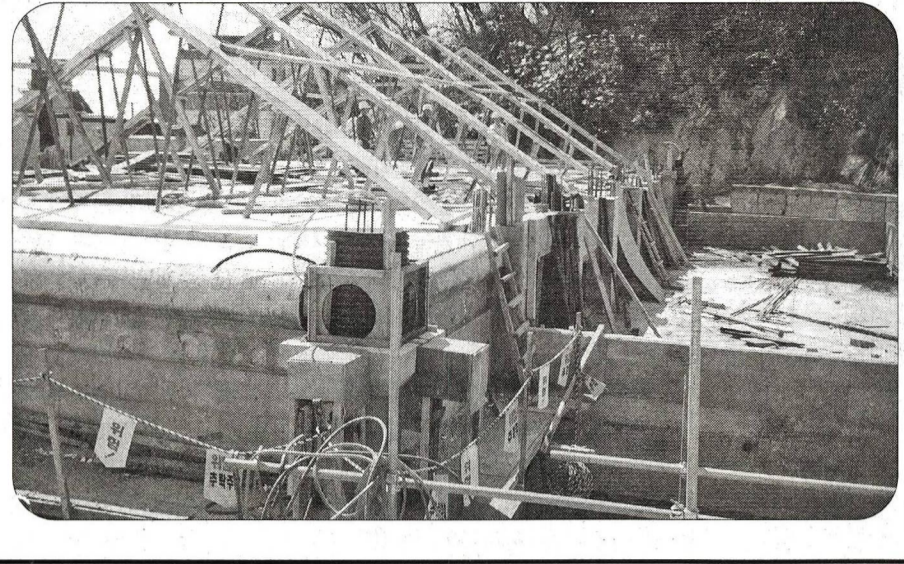


여의보주(如意寶珠)의 지물(持物) : 여의보주의 구슬을 지물로 삼고 있는데, 이 결인을 여의보주수라 하고, 진언은 여의보주수 진언이라고 한다. 여의보주는 갖가지 보배와 재물을 지니서 부유해짐을 상징한다. 진언은 '옴 바아라 바츠라 홀바타'이다.

지물은 보살이나 호법신중들이 중생을 제도하고 불법을 지키기 위한 자내증, 서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사원은 지금...

총지사, 관성사, 법황사, 덕화사 시원 개보수 및 신축



12대 집행부 구성후 본산건설과 법의 현대화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낡은 사원을 개보수 및 신축사업을 활발히 하여 교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진인 수행을 할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정보 다이제스트

30~50대 스트레스 "돈"

한국의 30~50대 성인 남성들은 둘 중 한 명꼴(49.1%)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의 36%는 '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원인은 ▶직장 사람과의 갈등▶고용 불안▶자녀 문제 등이었다. 또한 성생활에 있어서는 '만족할 때가 많다'는 응답(42%)이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응답(23%)의 두 배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간중앙이 여론조사 기관인 '폴애플'과 공동으로 전국 성인 남자 1천명(30~59세)을 대상으로 '한국 성인 남성의 건강과 성'에 대해 설문 조사해 7월호에 보도한 내용이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28%는 '하나 이상의 질병으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1주일에 나흘 이상 술을 마시는 '주당'이 다섯 명 당 한명 꼴(21%)이나 됐다. 담배도 10명 중 6명(64%)이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성관계 횟수는 3~5회가 32%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6~10회가 23.4%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6.4%가 비아그라를 복용해왔으며 그 중 67.8%는 약효에 만족감을 보였다. (월간중앙)

초등생 희망 직업 남자 운동선수, 여자 교사

초등학생들의 장애 희망이 남자는 운동선수, 여자는 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초등학교 5학년생 694명(남 384명, 여310명)을 대상으로 장애·희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남자는 19.7%(76명)가 운동선수, 여자는 25.8%(80명)가 선생님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남학생들의 직업 선호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14.0%(54명), 군인·경찰 8.5%(33명), 의사 6.5%(25명), 교사 5.2%(20명), 정치가 3.3%(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연예인 22.5%(70명), 의사 8.0%(25명), 운동선수 2.5%(8명) 순이었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자녀들의 직업 선호도는 남자가 판·검사 등 법조인 18.4%(71명)로 가장 높았던 반면 여자는 학생들과 같은 교사가 36.1%(112명)로 가장 많았다. (중앙일보)

미국여성 결혼 15년만에 43% 파경

미국 여성의 43%가 첫 결혼 후 15년 이내에 이혼하거나 별거에 들어가고 있으며 어려서 결혼할수록 결혼

생활에 파경이 빨리 올가능성이 높음으로 밝혀졌다.

USA 투데이는 28일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질병통제 예방센터의 통계를 인용, 5년이내에는 초혼의 5분의 1, 10년 이내에는 3분의 1의 여성이 각각 파경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995년 15~44세 사이의 가임연령층 여성 1만84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의 통계 자료다.

투데이는 18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 첫 결혼 생활에 들어간 여성의 약 59%가 15년 이내에 파경을 맞아 20세 이상의 나이에 처음 결혼한 여성의 36%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는 등 첫 결혼 연령과 파경 시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초혼 후 10년 이내에 파경을 맞을 확률은 지난 1973년 조사 때만 해도 20%에 불과했으나 95년 조사에서는 33%로 높아졌다.

재혼은 파경 가능성이 초혼보다 더욱 높아 재혼 후 10년 이내에 갈라설 확률은39%로 집계됐다. 결혼 연령과 파경 시기의 상관 관계는 재혼에서도 마찬가지로 25세 미만에 재혼하는 여성의 47%가 10년 이내에 파경을 맞는 반면 25세 이상은 34%로 폭 떨어졌다고 투데이는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비만이 흡연보다 건강에 해롭다

영국 공중보건 최근에 게재된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들은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2배 가까운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9천58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체중과 신장, 흡연 및 음주 습관을 포함해 소득과 삶의 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또 천식과 암, 당뇨병, 심장 질환 여부도 파악됐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 즉, 체질지수(BMI)로 구분할 때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은 수치가 18.5~24.0으로 나타났으며 과체중인 사람은 25~29.9로 나타났다. 또 비만에 분류되는 사람은 30~34.9까지도 나왔다. 이번 연구결과 미국의 59%가 최소한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험에서 비만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만성 질환이 약간 많지만, 매일 담배를 피우고 과음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흡연은 남성보다 여성의 건강에 더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40% 이상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랜드연구소의 경제학자 롤런드 스템은 공중 보건 관리들은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큼이나 비만 예방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갈 공동체적 삶의 영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복지센터 체험하기

- 1) 기간 : 7월 30일(월) ~ 8월 10일(금) 중 3일
- 2) 모집대상 : 지역내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 3) 모집인원 : 40명 선착순
- 4) 활동내용
  - ① 주간보호 어르신 일일 손주되어 드리기
  - ② 지역내 독거 어르신 식사배달하기
  - ③ 센터 환경정리 등
- 5) 봉사활동인정시간 : 11시간 이상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0-3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전화 564-9294 팩스 558-8772  
http://yssc.hihome.com

독거 어르신 손주되어 드리기

- 1) 기간 : 8월 1일(수) ~ 8월 17일(금)
- 2) 모집대상
  - ① 지역내 고등학생
  - ② 어머니와 활동이 가능한 중학생
- 3) 모집인원 : 10명
- 4) 활동내용
  - ① 독거 어르신 집안청소 해드리기
  - ② 말벗되어 드리기
  - ③ 어르신께 전화하기, 편지하기
  - ④ 어르신 밑반찬 해 드리기
- 5) 봉사활동인정시간 : 20시간 이상
- 6) 특이사항
  - ① 학기 중에도 주말을 통해 자원봉사가 가능함
  - ② 6개월 이상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학생을 우선 선발함
  - ③ 학부모의 봉사활동 동의서 지참



총지기획

# 수행법 논쟁에 부쳐



(명상아카데미 원장) **혜봉**

### 제3의 수행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요즘 화두선이 아닌 여타 수행들을 두고, '제3의 수행법이다' '불교적인 수행이 아니다' '옳다, 그르다' '큰스님들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등의 이야기들이 항간에 오가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논의에 앞서 제3의 수행법을 말한 분은 제3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행법을 두고 하는 말인지, 제3의 수행법이 있다면 제2의 수행법과 제1의 수행법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제3의 수행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언어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동사법, 마음수련, 기, 해피타오, 가이산의 마음수련, 정신세계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수련 등의 여러 가지 수련이나 라즈니쉬의 관법명상, 각종 힌두의 요가명상, 동남아의 위빠사나 명상, 티베트의 각종 대승 명상 등을 말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들어온 아파타나 코비의 7가지 성공하는 비법 등을 말하는지, 아니면 단학이나 국선도와 같은 각종 단학 수련이나 중국에서 들어온 법륜공이나 향공 같은 기공을 두고 하는

지 좀더 구체적으로 밝힐 일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칭한다면 그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되지 굳이 제3의 수행법이라 이름하여,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름 때문에 혼란을 야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며, 그냥 고유의 이름을 쓰면 되리라 본다.

수행정진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한다면 이런 논쟁을 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생사문제와 고통받는 이 시대의 중생들을 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참다운 나 자신을 깨치고 진리를 깨쳐 세상에 나아가 보살행 하는 것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다.

그리고, 각종 수행법이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은지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 부처님께서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들이 제시하는 수행법의 '최고경지'에 다다른 후에도 '생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 수행법들을 버리고 스스로 보리수나무 아래서 호흡관찰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관찰을 통해 정각을 이루셨듯이, 스스로 그 수련을 받아보고 자신이 원하는 바의 수련이 아니면 버리던 될 것이다.

### 수행방법이 문제인가, 아집과 법집이 문제인가

또한, 오늘날 화두선은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다고 하는지, 일부에서 화두 수행하는 분들이 법거랑 하는 것을 보고 '현실과 상관없는 관념의 유희' 하는 소리를 하는지, 선이 정말로 현대인들에게 맞는 수행법인지, 오랫동안 수행하던 스님들 중에서도 화두로 깨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돌아보되 혹은 수행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 봐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점을 치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셨지만, 오늘날 한국의 많은 불자들은 끊임없이 점과 보고 명리학을 공부하며 길흉화복을 점치는데, 이를 강요하고 비판한다고 될 일인가.

타인에 대하여 길흉을 점치고 무당을 찾아가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고 자 여러 가지 수련을 하는 사람들과 그 수련에 대하여, '그르다' '문제 있다' '한계가 있다' 고 하여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화두 참선하는 분들은 대중들을 생사해탈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특히 일반인은 그렇다 치고, 스님들이 역대 조사님들과 같이 다 깨치지는 못할지라도 것처럼 공부의 길로 일념매진 못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불교의 입장에서 최상의 수행법이라고 주장하는 화두를 들어도 자신의 고민을 해결 못 하고 번뇌만 쌓이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고통이 크든 작

든 그것이 바르게 해결된다면, 화두 수행법이 아닌 여타의 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주장들이 화두 수행법의 고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대중들로 하여금 화두 수행하는 분들은 자기만 최고라 하는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화두 수행을 해보고 화두 수행의 그 묘하고도 즉각적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며, 특히 개인적으로 처음에 화두를 들었다가 의단 참구가 되질 않아서, 다양한 수련을 통해 나중에 화두로 돌아온 본인으로서 더욱 그러하다.

이 화두 공부법을 이 시대 대중들이 받아들여 깨칠 수 있도록 사무치도록 정진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면, 화두 수행이 어렵다고 외면하

## 제3의 수행법을 묻는다

요즘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사람들의 심신수련을 위해 유행하고 있다. 더러는 유익하게 생각하고, 더러는 혹시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 폐해는 없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1990년 이후 불교전통 수행법에서 일부 변형된 수행법, 일명 제3의 수행법이 교계에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파타, 마음수련회, 초월명상, 파룬공 등 수많은 새로운 체계의 수행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단계별 수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자신의 삶을 뜻대로 다룰 수 있다는 아파타는 현재 우리나라에 3~4백 명의 마스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마음수련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가야산에 본원을 두고 수많은 수련생들이 찾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수련법을 가지고 불교계에서는 제3수행법은 불교수행법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근본사상은 불교가 아니기에 완전한 불교수행법으로 볼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종교의 틀을 갖 추고 있지 않지만 기본사상은 불교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교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

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교 전통수행법인 '참선'이 재가자는 물론 출가자에게도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재가자에게는 정확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화선 중심의 한국 불교의 수행체계는 출가자는 물론 바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쉽게 접근할수 없는 등 매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불교에서 간화선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기반이 약한 이유는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함께 쉽지 못하고 있으며, 깨달음을 지나치게 강

### 제3수행 불교적 수행인가?

### 불교를 빙자한 수행의 한 흐름인가!

관념으로만 인식된 것이다. 또한 간화선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선은 좌선의 자세에서 오는 고통과 중생으로서의 이해할 수 없는 선문답이 대부분이어서 재가자들은 선수행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간화선이 불교수행법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대중화와 선이 풍기는 신비성을 벗어나 일상속에서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면에서 보면 제3수행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매력력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 탐진치 삼독과 아상으로 망령된 자기를 버리는것이 중요

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공부하는 자세와 노력한 바를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역대 조사들이 수없이 깨쳤던 바가 사실일진대, 누구든지 깨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 또한 그의 단견이며 자신의 허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탐진치 삼독과 아상으로 형성된 망령된 자기를 버리고 참된 자기를 깨치고 진리를 깨달아 생사문제를 해결하여 고통의 바다를 건너면 되는 것이다.

화두 수행법이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교의 관법 수행이 중국에 들어와서 노자의 장자를 만나 중국 토양에 맞는 수행법으로 완성되었듯이, 화두가 최상이라 해서 화두만 주장하는 것 또한 법에 묶이는 또 하나의 법집이 아닐 수 없다. '위빠사나'가 최상이며 근본이며 화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 또한 이와 다

를 것이 없다.

화두선을 하든 위빠사나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그 어떤 공부를 하든 자신의 공부법에 묶여 내가 공부하는 방법만이 최상이라 주장하면서 타인의 공부법은 폄하하는 일 자체가 이미 법에 묶인 법집은 아닐까.

### 수행자로서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펴신 이후 인도에서는 불교와 힌두교가 서로 융합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종교와 사상의 꽃을 피웠고, 중국에서는 불교가 들어가서 유교, 도교와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인도에는 없는 중국적이며 동아시아적인 선불교의 꽃을 피웠으며, 불교에 영감을 받은 유교와 도교 역시 보다 풍성한 사상과 문화의 꽃을 피웠듯이, 오늘날 서구에는 서구의 종교와 철학이 동양의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만

나서 과거 세기와 다른 서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꽃을 피워 가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한편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화해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직도 부정적이며 편견에 가득찬, 찌든 사교에 묶여 사는 우리들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공부하고 명상하며 참선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자기를 버리고 이 모든 장벽들을 서로 희롱시켜 하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서로간에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따라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명상을 하건 참선을 하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법에도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공부에 분명한 선지식들이 확인되도록 할 때까지 공부하되, 다른 공부법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 공부를 확연히 할 때까지 공부하여, 오늘날 인류와 우리 사회가 참된 자신을 상실하고 탐욕과 감각적 쾌락과 서로 다른 모양과 견해와 무지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에 끊임없이 싸우고 사는 이 불타는 화타의 세계를 구제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 아는만큼 보이고 느낀다



## 염주(念珠)

염주는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구슬입니다. 불자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며 염불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번뇌의 장애와 염보의 장애를 없애고서 하거든 108염주를 가지고 앉거나, 눕거나, 다니거나 늘 흠여짐이 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이 나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염주알을 돌립니다.

몸과 마음이 산란함이 없이 일념으로 20만번을 채우면 그 목숨이 마친뒤에 염마전에 태어나서 의식이 저절로 갖춰지고 언제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백만번을 채우면 백팔만번이 끊어지고 비로소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나아가 최상의 보리를 얻을 것이라 합니다.

염주에는 108염주가 있고, 손목에 거는 7알, 16알, 21알 등의 단주가 있습니다.

108의 의미는 인간의 육체에도 108마디가 있고, 인간의 번뇌에도 108번뇌가 있다는데 있습니다.

108번뇌란 육근의 眼, 耳, 鼻, 舌, 身, 意와 육경의 色, 聲, 香, 味, 觸, 法の 육근과 육경을 대할 때 좋고, 나쁨, 평 등의 세가지가 서로 같지 않아 18번뇌를 일으키고, 곱, 樂, 捨의 3수가 있어 18번뇌를 내니, 모두 합하여 36종, 이를 과거, 현재, 미래에 배하여 108번뇌가 됩니다.

총지중보 삼밀수행으로 몸(身)으로 금강정좌를 하고 왼손은 금강권 오른손으로는 108염주와 56염주를 사용하며 입(口)으로 진언을 염송하고 뜻(意)으로는 관하는 三密수행을 합니다.

삼밀관행법은 여래의 삼밀과 중생의 삼밀을 상호섭입(相互涉入)시키므로써 범성일체, 생불일여 凡聖一體, 生佛一如의 경계에 도달하게 하는 수법을 하고 있습니다.

### 신밀·구밀·의밀

### 삼밀 수행으로

### 부처님의 경계에 도달

## 나의 작은 별 이야기

상상해 봐, 네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때 네 곁을 하나, 네 눈짓 하나 하나가 모두 기쁨이 되지 않겠어?  
고개를 들어도 고개를 숙여도 온통 사랑뿐인 거야.  
그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네 별로 보일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와 너는 어떤 관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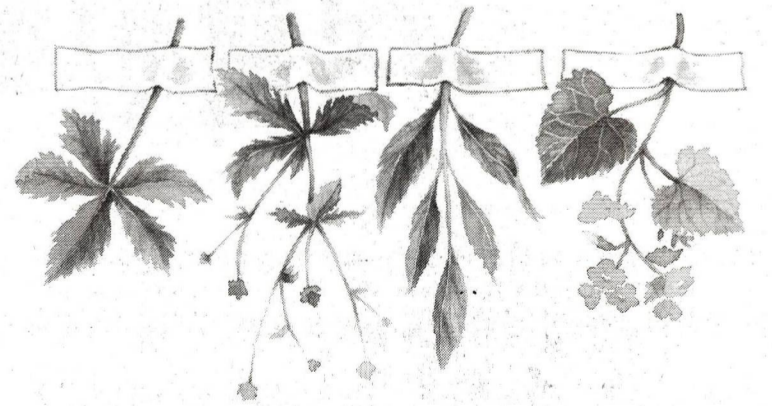
마음의 연못에서 길어 올린, 존재와 사랑에 대한 샘물 같은 깨달음!

이 안 글·그림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심대에 불교에 입문하여 생활선(生活禪)을 수학했다. 집필과 출판일을 하며 존재의 본질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일반화·현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양장본·울림/204쪽/값 8,000원

씨앗을 뿌리는 사람  
SIAT Publishing Co.

TEL:(02)511-3495-6  
FAX:(02)511-3498



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 네 가지 약속

돈 미구웨이스 저/정미선 옮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자유로운 삶으로 이끄는 특별한 약속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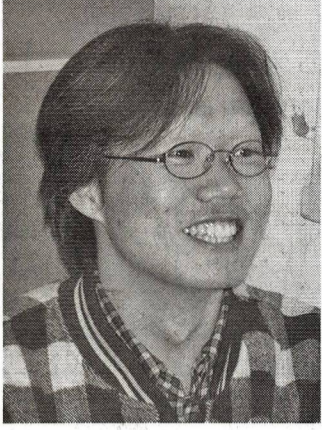
- 말로 죄를 짓지 말라
- 아무 것도 자신과 관련시켜 받아들이지 말라
- 추측하지 말라
-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양장본·울림/184쪽/값 8,000원



총지논단

# 해인사 청동대불 불사 논쟁에 대하여



윤남진

(참여불교 재가연대 기획실장)

불교계 뿐 만이 아니라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서까지 해인사 청동대불 불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문제는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상인 대표'이자 구암 선방 수좌인 수경 스님이 지난 20일 '현대불교신문'에 기고한 '자용, 성철의 죽음을 고향다'는 제목으로 글에 대해, 해인사 선방에 안겨 죽었던 스님들이 선방을 이탈하여 집단으로 실상사에 찾아가 기물을 부수는 등 소송을 피운 것에서 일파만파 불거져 나온 것이다.

수경스님의 기고문 요지는 간단하다.

해인사는 세계 최대의 청동대불을 세우라는 것은 자용, 성철스님의 유지라고 하는데 두분 큰스님의 생전 가르침으로 볼 때, 속물주의의 상징인 세계 최대의 청동대불을 세우라고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세상의 비판과 원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큰스님의 유지에 따른 불사라는 명분과 논리로 불사를 진행하는 자들도 흠뻑이름 좇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사자(자용, 성철)는 토끼 새끼를 낳지 않는다'며 청동대불 불사를 추진하는 측을 '토끼'에 비유하여 비판한 것이다.

수경 스님의 기고문은 즉각 '실상사 집단 소송'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선각 스님 등 30명의 해인사 선방 수좌들이 실상사로 물러가 수경 스님의 집기를 부수는 소송을 피했다.

이어 선각 스님은 '일찍이 부처님에 말세에 약한 성품을 가진 비구가 나타나거든 침묵으로서 상대 말하고 당부했다'며 수경스님을 악성비구로 몰아 부쳤다.

그러자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호림 스님이 '수좌들의 죽음을 고향노라'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수경 스님의 글이 아

무리 마음에 안들어도 해인사 수좌들이 폭력을 동원해서는 안됐다'며 '해인사 수좌들은 양아치 수준도 못된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나아가 '수좌들이 스스로 한 행동인지 궁극하며, (수좌들의 행동은) 수처자주(隨處作主) 하지 못한 모태동의 흉위병 같은 행동'으로 '전국의 수좌들을 해인사 수좌들이 다 죽였다'고 몰아세웠다.

여론은 수좌들의 폭력적인 집단소송에 대해 한결같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 “자주 모여 진리(法)과 정의에 대해 의논하라”

왜 이런 일이 언론에서 연일 다루어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일이 왜 이렇게 크게 불거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열린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출가승려들의 동매적 행동의 습관적 반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최근 급격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넓은 의미의 언론기능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강화되었다.

비록 그 익명성으로 인해 윤리적 책임

의식이 특별히 요구되기도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폭증은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집단에 대해 그리고 사회적 인 이슈에 대해 즉각적이고 일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주요한 집단에게 있어서 사회적 상식으로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타당한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동참했던 가야산 골프장 반대운동과 우회도로 반대 운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해인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최소한 시민사회의 상식을 지키는 합리적 방법으로 여러 의제들을 다루어 가지 못했다. 해인사 출가 승려들의 독선적 자세 혹은 닫힌 마음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독선적 자세 혹은 닫힌 마음이 토의적인 자세 혹은 열린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 출가 승려들의 자질부족과 무능력, 그로 인해서 생겨난 자신감의 부재와 정신적 공허함일 수도 있다는 식자들의 탄식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태의 시간만이 남은 것이다.

다음은 우리 속에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 폭력문화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폭력은 인내 있는 토의와 설득을 포기하는 반불교적인 회교행위이다.

연필집 출가 승려사회 내의 미사여구로 이번과 같은 집단적 원력행사가 전통적으로 있어온 '눈푸른 남자들의 결기'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과는 조공의 인연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배척해야 할 행위이고 스스로를 천하게 만드는 행위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오히려 이런 폭력에 대한 비뚤어진 의식으로 인해 출가 승려들은 다중이 모여면 반드시 한비탕 해야한다는 마음을 형성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폭력이 백주대낮에, 몰염치하게 자행되어 왔던 것은 아닐까. 이런 폭력문화를 토론문화로 바꿔 가야 한다.

부처님께서 '교단을 같이 보전하기 위해 '진리(法)와 정의에 대해 자주 의논

하라'고 가르치셨으니 이에 따르면 될 일이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고 진리와 정의에 부합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의 내적 자신감으로부터 우리를 사회에 활짝 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안에 모범 혹은 좌장으로 서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이다. 부처님의 과거 코삼비 비구들의 다름 이후 공식화 한 '다름을 해결하기 위한 일곱가지 방법'에 보면 최후의 일곱 번째 방법이 '진흙을 덮어주는 집'이다. 이는 모양에서 다름의 양측을 대표할 수 있는 덕망높은 비구가 한 명씩 선정되어 양쪽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의견을 정하면 특별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치 집이 진흙길을 덮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진흙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인사 문제를 보면 진흙을 덮을 만한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후진들 스스로도 '특별한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 서 정하신 바와 같이 출가한 순서대로 앓는 법(위계질서)은 견고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사회가 여론을 일으켜 '악'을 주려고 하여도 좀처럼 '악'을 먹지 않으려 하는 해인사 스님들을 보면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

총지 등의 보감

## 폐암의 증상

폐암의 자연적 진행과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으며 첫째가 객담의 세포검사서 세포 이형성 (cell atypia)이 나타나는 수개월 내지 수년간이며, 세포 이형성 이란 세포의 모양이 정상이 아닌 이상한 모양을 말하며, 둘째는 침윤전암 (carcinoma in situ)으로 진행되는 기간과 셋째는 뚜렷한 폐암소견으로 발전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국소적, 부위별, 전신전이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의 이소성 내분비증상, 종양의 증후군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흉부 X선 소견에서 편평상피 세포암과 소세포 미분화암 등은 폐문부 부위에 나타나며 선암 및 대세포암은 폐야의 말초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심형 암인 편평상피 세포암 및 소세포암 과 말초형 암인 선암과 대세포암의 증상에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기관지, 폐쇄에 의한 무기폐 발생으로 폐용적 감소와, 기침,

초형 폐암에서는 중심형 폐암보다 기침이 적습니다. 만성적인 기침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침골절 (cough fracture) 혹은 기침실신 (cough syncope) 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심형 폐암은 기침, 호흡곤란, 흉부동통, 각혈, 천식음 등의 임상증상이 암의 초기에 나타나 진단을 초기에 할 수 있어 치료가 쉬울 수 있으나, 말초형 폐암은 임상증상이 거의 없이 초기를 지나고 임상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진행된 암 상태 이어서 치료가 불가능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세이상 일때에는 폐암의 초기 진단의 목적으로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흉부 단순촬영, 객담 암 세포진 검사, 및 폐 전산화 단층 촬영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폐암의 초기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옥수

대구가톨릭대학교 흉부외과 교수

## 40세이상 정기적 검사 필요 폐암 초기발견 중요

혈담, 천식음, 호흡곤란과 종격동 및 기관지와 혈관주위, 신경침범 등에 의해 흉부동통이 발생합니다.

흉부동통은 막연하나 계속적이며, 동통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흉부동통이 나타나는 경우 국한된 예민한 늑막성 동통이며, 늑막 삼출액이나 이들 동통에 의한 제한성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말

생활속의 밀교

## 비난의 오류와 침묵

인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늘 변하고 있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남을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심판할 수가 없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함부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또는 며칠 전의 낡은 잣대로 현재의 그 사람을 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는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비난은 늘 잘못된 것이기 일쑤이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는 이미 판사님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말로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자란다. 이 사랑의 능력을 통해 생명과 행복의 씨가 움트게 된다.

또, 우리는 얼마나 일상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가. 의미없는 말을 하루동안 수없이 하고 있다. 사람을 만나면,

서로가 유익한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

말은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 한 마디로 충분할 때는 두 마디를 피해야 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내부는 비어 있다. 말이 적은 사람, 침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사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경전은 말하고 있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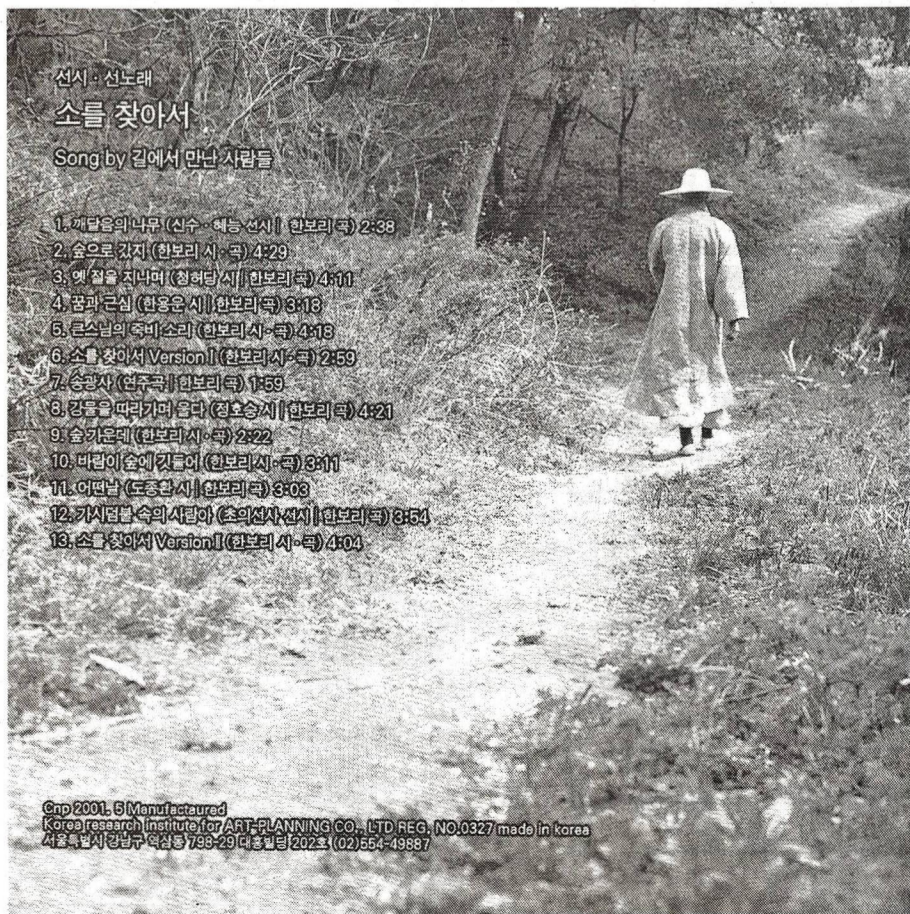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소음과 다름없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말을 안에서 후회되는 일보다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오늘부터 말을 아끼자. 생활 속에서 닦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활속의 불교, 생활속의 밀교는 별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 입에 말이 적으면

##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 음반 선시·선노래 “소를 찾아서”



한국불교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선시(청허당 서산대사, 초의선사, 한용운 등)를 현대적인 선율에 얹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며 도종환 시인, 정호승 시인의 선적 영감이 깃든 시가 호소력 짙은 여성보컬 허설의 목소리에 담았습니다.

“소를 찾아서”는 차분하면서도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찬불가이며 불교생활가요이다.

문화예술푸른소



현목의 세상읽기



# 느리게 살자구요?

지난 해 어느 쫄임가부터 뭐 '느림의 미학'이라나 뭐라나 하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다. 말 자체가 멋있었다. 허겁지겁 달려가야 빈 싹속이나 채울 수 있는 이 살벌한 시대와 사회에 반기를 드는 말 같아서이다. 그리고 그 뒤에 '미학'이라고 붙이니까 어찌나 고급스러워 보이는지, 더구나 그 '미학'의 제안자가 프랑스의 철학자라니, 없어도 있어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인가, 요즘 유행처럼 이와 관련된 책도 수 종류가 나와 있다. 어쩐지나.

대체 그 내용을 알고 싶어 버려다가 며칠 전 프랑스의 피에르 상소가 지었다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사서 열심히 읽었다. 생소한 이름의 상소라는 저자의 글을 읽어본 소감은 한마디로 '뭐도 없는데 있는 척 하려는 수작'을 본 기분이다.

이 책을 낸 출판사의 소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출간되자마자 '논픽션'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그 나라의 지적 풍토를 대충 알만하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현대사회는 속도를 요구한다. 시간에 쫓겨 살아야 한다. 하여 파스칼의 말처럼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비롯된다. 따라서 느리게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한가로운 거닐고, 고급스러운 권태에도 잠겨보고, 느긋하게 꿈을 감상하고, 포도주 한잔을 음미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다. 그래. 맞는 말이다. 사색을 할 줄 모르는 인생은 불행이다.

그런데 이런 '고급스러운 권태'나 사색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다. 그저 허겁지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걸음을 늦추고 '한가로운 시간'을 가져보라고만 한다. 이 작자는 한술 더떠 그러면 신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시면 뵈지나 말아야지.

다른 얘기 한토막. 한 달도 전에 선배 한 분과 모처럼 인사동에서 꼭지를 나눴다. 미술사학계에 널리 이름을 떨치는 분으로서 자주 자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늘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이런저런 지난 얘기를 하다가 그 선배의 학교 동기 된다는 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말에 따르면, 대학에서 함께 미술을 전공하던 친구는 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뒷전으로 밀고 다른 일을 했다고 한다.

아마 미술을 해서는 좀체 먹고살기가 힘든 세태인지라 진자에 다른 부문으로의 진출을 꾀했다 보나. 그는 그 새로운 선택으로 지금은 여유 있는 중년을 향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느 때이던가, 그 친구분은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네가 부러워, 자는 전공을 살려 하고 싶은 일을 하여 왔고, 또 그 바다에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고 있으니 자네가 정말 부럽네.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다시 예전의 내 전공을 살리고 싶거든."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다고 한다.

뭐 그 친구분이라는 사람이 진짜 자신의 옛 전공에 대한 진한 의지가 있어 그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는지 아니면 그저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랬는지 그 진위는 잘 모르겠다.

중종 방송이나 신문, 혹은 잡지 따위에 간혹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예술이나 사회활동에 진출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아니 자신의 전업과 함께 예술활동을 아예 겸업으로 하는 이들이도 상당하다. 그러나 저러나, 전업이든 겸업이든 아니든 취미이든 간에, 또는 먹고살기가 넉넉하여 예술을 하든 나발을 불든 뭐 상관이다.

한창 때 죽을듯 살듯 벌여 중년의 나이에 그 넉넉함을 바탕으로 좀 고상하게 살겠다는데 뭘 시비할게 있겠나. 아니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것을 시비하는 건 뭘지 잘된 사람의 여유를 배양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래 배양이라고 해도 좋다. 좀 솔직히 말해 이런 이들의 얘기는 너무 기름기가 돈다. 빠르게 살아온, 그래서 지금은 여유로운 중년이 되어 생각해보니 뭔가 허전하고 회의가 들어 지난 청년 시절, 장래의 하고자 했던 자신의 이상을 접은 보상으로 자신이 누리는 호사에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그 심리가 치사하게 느껴진다.

빛대자면 어느 방송에서 유명인들이 생산현장의 인부와 함께 '고생'하는 '체험, 삶의 현장'을 보는 것과 똑같다. 그네들이 체험한 현장의 근로대중이 삶의 버

림에 몰려 파업, 농성을 할 때 현장에서 체험했던 유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느낄까? 그렇게 부유한 중년에 들어서야 청년시절의 이상을 재현한다고 하여 그것이 무엇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들의 고상함을 꺾아 내리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모순과 갈등이 더욱 고착화하였는데 하여 그네들이 이것에 일조를 한 것은 아닌지 성찰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이다. 더 바람직하면 그 성찰을 바탕으로 최소한 '시민운동'에 그들이 보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부류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들이다. 늘 쫓겨 사는 것 보다는 한 걸음 느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가? 그러나 이것이 고작 개인의 여유로움에 그친다면 호사에 불과하다.

느리게 살자고 권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빨리 가도록 채찍질하는 세력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그리하여 참으로 인간이 개인의 영달에 쫓겨 살지 않고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만드는 사회적 관계의 해체를 위해 실천하는 '의지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때 진짜 '느림의 미학'이 미학으로서도 인정받게 된다.

“**한걸음 느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사는 것이 필요**”

## 월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글/그림: 정수일



하하하! 뭘 걱정하니? 내가 다 먹으면 되지.

어제 법회에서 배운 "현교와 밀교"에 대한 간단한 차이점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먹기로 하지.



하하하! 하하하! 그것도 모르냐? 현교는 돌다리고 밀교는 쇠다리지.



역사적인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현교"라고 하고 영원한 우주적인 진리를 부처님화한 법신대일여래의 설법을 "밀교"라 한다. 라고 배웠지. 앗!



가.. 가지라고? 네가 가지가 뭔지나 알고 그래?

하하하! 채소가게에 가면 많이 있잖아. 하하.. 가지란 가피(加被)와 섭지(攝持)의 뜻이지요.

"가피"란 부처님께서 자비의 힘으로 중생을 이롭게 함을 말하며 "섭지"란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한 결과로 얻은 가피를 받아 지님을 말한답니다.

헤헤헤... 그럼 제가 참외를 먹게 된 것도 하나의 "가지"로군요. 아이고~! 부처님, 제겐 참외라도 내리소서.



허허.. 좀 나눠 먹지 않고..

**DH care 드림 홈케어 센터**

**자립의지, 생활의 활력증진 드림에서 찾으세요.**

드림 홈케어 센터는 일상생활의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자립의지와 생활의 활력을 되찾아 주고자 탄생했습니다.

**홈케어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  
**홈케어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쉽 없는 노력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DH care 드림 홈케어 센터**

**홈케어 마스터 수시 모집 (HOMECARE MASTER)**

홈케어 마스터란 본 센터에서 홈케어 활동을 하시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전문인 모집**

홈케어의 전문적 질을 높이고자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심리상담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을 수시 모집합니다.

**비전문인 양성**

홈케어 마스터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연령 : 만 20세 이상 ~ 55세 미만
- 학력 : 고졸 이상
- 양성과정 : 3주 교육 교육 후 준 홈케어 마스터 수료증 부여
- 보수교육 과정 : 6개월 교육 홈케어 마스터 수료증 부여

**DH care 드림 홈케어 센터**

**홈케어를 받으실 분 (HOMECARE MASTER)**

일상 생활 능력이 부족하신 어르신, 장애인, 장애아동, 청소년 등 자립의지와 생활의 활력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서비스 내용**

- 정서상담 및 지원 서비스
- 가사지원 서비스 (조리, 세탁, 청소 등)
- 활동지원 서비스 (의출, 병원동행, 행정업무 대행)
- 특별지원 서비스 (의상환자, 언어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지원)

**홈케어 접수 및 신청**

- 주간(9시 ~ 20시) 전화 : 569-6811, 018-361-2481
- 야간(20시 이후) 이메일 접수 yeoun-yang@hanmail.net 또는 http://cafe.daum.net/dreamcare/
- 신청접수는 케어 받기 3~5일 전에 하시고 원하는 기간, 서비스 내용, 연락처, 이름(주민등록상 실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비용은 선불\***

**DH care 드림 홈케어 센터**

**신청 및 접수방법**

홈케어를 받으실 분

전화문의 : 569-6811

↓

**상 담**

↓

**접 수**

↓

**홈케어 서비스**

홈케어 마스터 하실 분

전화문의 : 569-6811

↓

**상 담**

↓

**접 수**

**DH care 드림 홈케어 센터**

**특약사항**

- 시간당 추가요금 부가(1시간당 30% 추가)
- 장기계약 할인
  - 3개월 이상은 총금액의 10% 할인
  - 6개월 이상은 총금액의 20% 할인
  - 1년 이상은 총금액의 30% 할인
- 요양시설 연결시 실비추가 무료알선

**은행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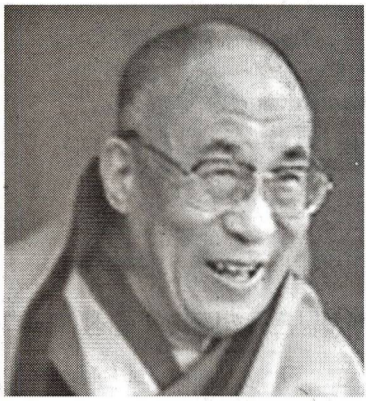
- 조흥은행 : 389-04-531494  
예금주: 양 윤 순
- 중소기업은행 : 065-041054-01-019  
예금주: 드림 홈케어 센터

**24시간 케어,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 달라이라마 2001년 한국방문 끝내 무산

## 방한준비위, 7월 다람살라 방문 방한운동 설명



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몇차례 약속을 어긴 것을 의식한 듯 '그조차 확실한 것은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다' "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방한준비위는 이같은 정부측의 입장은 사실상 2001년의 달라이라마 방한이 공식적으로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방한 준비위는 달라이라마 성하의 2001년 방한 무산과 관련하여 오는 20일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 강경한 대정부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방한준비위는 정부의 행정남용, 인권경시, 합당미달의 외교정책을 바로 잡기 위하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고, UN인권위원회 제소 등 국제적인 여론과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이면 문제를 공론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방한준비위, 7월 15일경 티베트의 망명정부인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하여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지난 2년동안의 방한

운동을 설명하고 방한 무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기로 했다.

한편 방한 준비위는 달라이라마의 방한 허용을 촉구하는 108배 1

인 릴레이 시위를 6월11일부터 16일까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행했다.

### 풍경소리 '자비의 말씀' 무선인터넷 n-Top 서비스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부채널 말씀을 비롯해 마음을 맑고 밝게 하는 '자비의 말씀'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대도시 지하철 및 국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게시판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자비의 말씀'을 휴대전화로 보게 됐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는 5월 25일 "무선 인터넷 전문회사인 (주)엠플과 업무제휴를 맺고 '자비의 말씀'을 SK텔레콤 011 무선인터넷 n-Top을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풍경소리와 (주)엠플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개시에 따라 011 가입자 누구나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에서 자비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자비의 말씀에 담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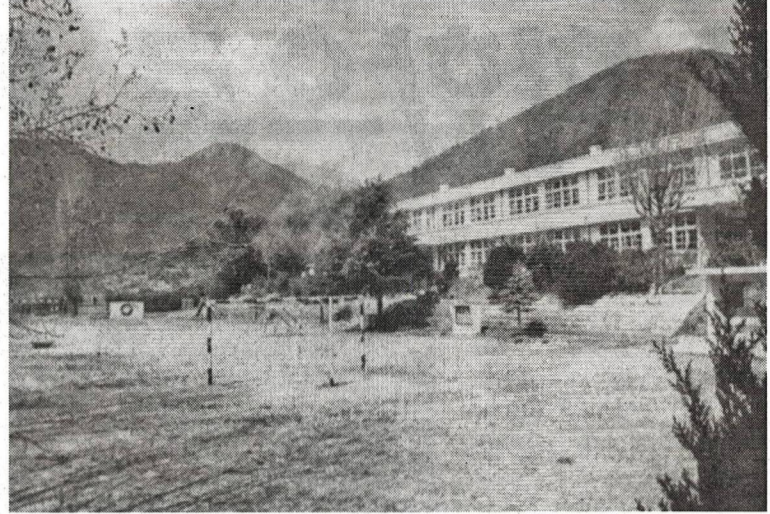
맑고 향기로운 글귀를 휴대전화를 통해 친구나 연인에게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게돼 고교생과 대학생 등 젊은 층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불러올 전망이다.

휴대전화를 통해 풍경소리 자비의 말씀을 보려면 011 핸드폰 n-Top에 접속, 초기화면에서 뉴스와 생활을 선택한 뒤 M메거진을 클릭한 후 매거진 명품판을 다시 클릭하면 풍경소리로 접속할 수 있다.

풍경소리에 접속하면 지하철 개시관에 게시됐던 49종 자비의 말씀이 '마음 찾는 길' '더불어 사는 삶' '나누는 기쁨' 등의 주제별로 정리돼 있다. 한편 풍경소리는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016과 019 사용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경북 청도에 불교계 첫 대안학교 설립

## 재가연대 2003년 개교 위해 수련회 주말학교등 운영



청도 평화 학교는 2003년 3월 개교예정인 △대안교육지도자 양성 교육 △영남지역 청소년 수련 △ NGO 문화교육시설프로그램운영 △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봉사(의료 및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등 7월부터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중장기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초록마을 상임준비위원인 이영철 재가연대 사무처장은 "평화학교는 NGO활동의 본격적인 물적도대를 구축하는 계기이며,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격적인 불교 생태공동체 건설에 나서게 되었다.

### 제1회 울릉문화 축제

#### 울릉도 도동항에서 열려

진각종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울릉문화원, 울릉청년단이 후원한 제1회 울릉문화축제가 지난 6월 20일 울릉도 도동항에서 2천여명의 울릉군민들과 진각종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 문화축제를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릉도에 처음 열린 문화축제를 계기로 진각종과 울릉도 관계가 더욱 발전되

고 울릉도 문화가 성숙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실내악단 '오르름'의 국악공연으로 화려하게 시작된 축제는 국악인 최진숙씨와 송포 사물놀이패, 혼성중창단 L.M.B가 찬불가와 국악 등을 연주하여 참가한 울릉군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음악공연을 마친 후 멀티비전을 통해 영화 '공룡김부역 JS'를 상영했다.

### 화제

## 북 누이 상봉

본 종단이 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여익구 관장님이 55년만에 누이인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딸인 여원구(73)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이 15일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석한 남측 10촌 동생 여익구(55,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관장) 씨와 상봉을 했다.

지난 46년 월북하기 전 어린 여익구씨를 자주 봤다는 여 의장은 "익구야 너 왜 인제 왔니"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여 의장은 특히 가족들의 소식을 물어가며 "빨리 통일하자"고 힘

주어 말했다. 여익구씨는 "지난 91년 11월 연구 누님이 서울에 왔을 때에는 민주화운동으로 가

택연금증에서 만나지 못했다"며 "여기서 누님을 보게 될 줄 몰랐다"며 감격해 했다.

두사람간 55년만의 상봉은 신창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신 의장은 지난 14일 금강산에 도착하자마자 허혁필 북한 민회협 부회장에게 "연석회의 때 만났던 몽양 선생의 따님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허 부회장은 "여원구씨도 꼭 오실 것"이라며 이날의 상봉을 예고했다.

한편 여익구 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과거와 달리 남과 북이 서로 사상과 이념 제도에 대한 배려와 헤아리는 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라며 남과 북이 하루빨리 하나가 되기를 바랐다.

## 6·15남북 공동선언 1주년 기념법회

### 자주적 통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북측이 마련한 환송식에서 남·북한 대표단이 손에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

6.15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6월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종교계와 시민, 사회단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후 참석자들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끼리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단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성명도 채택하여 "일본 보수우익세력들의 역사날조 책동을 과거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범죄를 합리화하고 군국주의 명령을 되살려 재침의 야망을 실현

해보려는 용납하지 못할 범죄행위로 낙인찍혀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6.15 공동선언의 본질과 방향'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6.15 공동선언 발표는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은 자주통일의 근원' '화해와 상생으로 민족의 번영을 맞이하자'의 주제를 손재대 민회협위원장, 김세민 북 사회과학원부원장, 조불련 중앙위원장, 한양원 민족통일대토론회 의장이 각각 3시간에 걸쳐 열띤 주제발표를 하였다.

한편 북한의 각지 사찰에서는 15일 일제히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다짐하는 법회가 열렸다. 16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 발표1주년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진행된 법회에는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와 각 시도·군 위원회의 불교 관계자와 해당사찰의 스님들이 참가했다.

### 사랑의 실천

## 소녀가장 소영이를 도와주세요

가정을 지키려는 소녀가장 소영이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 묵호여중2학년 재학생인 정소영양은 전신마비로 입원중인 홀어머니 신순연 보살의 입원비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 따듯한 손길로

#### 소영이에게

#### 희망을 주소서

4년전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 후 어머니가 합계 3남매를 키우던 중 어머니가 전신마비로 걸려 전신마비 증세로 수술을 받았으나 1년만에 재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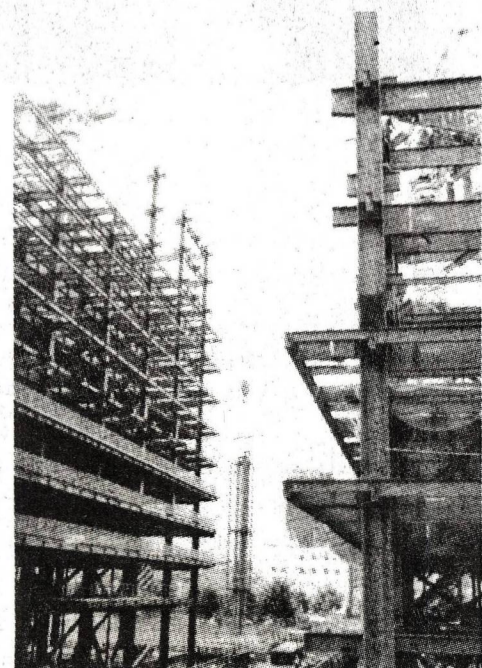
엄청난 수술비와 생활고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영이는 현재 월10만원 단칸방에 3남매가 살고 있으나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여 어린 3남매가 쫓겨날 사정에 처해있다.

소영 양은 "예전에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찾아가던 동해시 삼락사에 동생들과 함께 가서 부처님전에 두손 모아 기도드린다"면서 불자들의 정성을 간절히 호소했다.

집=(033)533-2812, 순천향병원=(02)709-9916  
우체국(예금주 신순연)=012054-02-059059

# 옥천건설주식회사

건물의 심장과 같은 설비 공사를 옥천에 맡겨주세요!  
25년 장인의 정신으로 성실히 시공하겠습니다.



### 주요 사업

- APT 기계설비공사
- 오피스텔 기계설비공사
- 아파트형 공장 기계설비공사
- 병원 기계설비공사
- 숙박시설·사우나 기계설비공사
- 수영장 기계설비공사
- 사찰 설비공사

- unit FLOWER 공법시공 경험
- PFP 공법 시공 경험
- 25년의 설비시공 Knowhow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 자비·화합으로 피어나는 연꽃같은 단음사

### 영천 단음사를 찾는 날

전국은 4개월째 가뭄에 허덕이고 있다. 저수지 바닥은 거북등 처럼 갈라진지 오래다. 전국민이 가뭄극복을 위한 지혜와 성금을 모으고 소방차, 화물기차를 동원하여 물이 없어 미처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에 물을 공급하는 진풍경이 한창이다. 연일 뉴스에서는 물로 인한 진풍경을 알리기도 한다.

영천 비로자나 공전을 찾는날 부처님은 감로수를 내려주셨다. 마치 영천 초행길에 선물을 주시듯 가뭄으로 인한 농심과 민심을 달래주길라도 하듯이 환희심의 감로수를 내려 주셨다.

이런 감로수가 싫지 않은 듯 많은 사람들은 비에 흠뻑 젖어 기뻐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영천 소방서 뒤 영천 단음사를 이렇게 찾아보았다. 벌써부터 여러 보살님과 각자님들이 기다린다. 칠이 퇴색된 불교총지중 단음사라는 목간판이 세월의



**일신행 스승님은 스스로 스승의 자격에 대해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운 사람과 환자들을 지심으로 도와주며 하나되어 이들을 해탈시키는 것을 시험대로 삼아서 단음사를 이끌고 있다.**



연을 말해주듯이 감로수에 흠뻑 취해있다. 비록 도심속에 세련된 사원은 아니지만 여는 사원이나 마찬가지로 푸근한 어머니의 품과 같이 안아주셨다. 넓은 정원은 금강법계궁의 모습이었을 수많은 분재와 수석은 교도가 되어 "성도합시다" 하며 합장을 하였다.

영천은 보현산의 높은 기슭과 금호강의 맑은 정기가 조화를 이뤄 예로부터 삼산이수의 풍광 좋고 인심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충절의 고장으로 포은 정몽주선생과 박인로, 최무선 장군 등 많은 선현들을 배출하였고, 임진왜란과 6.25 사변의 애국애족의 자랑스런 호국충절의 고장이 영천이다.

갈벌국이라는 부족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서기236년 신라에 병합되어 균현체제에 들어가 지금의 영천지역이 되었다.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이들은 각각 임고군과 신녕현으로 개칭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영주군으로 불리다가 1413년 (태종 13년) 영주군을 영천군으로 개명되었다.

1981년 영천읍이 영천시로 분리, 독립되었다가 13년 6개월만에 다시 시와 군이 하나로 통합된 영천시는 시, 군 통합이후 경상북도 내에서는 여섯번째로 넓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예로부터 사찰이 있는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풍수적으로 최고 이다는 말이 있다. 영천 또한 단음사를 비롯한 주위에는 조계종 제 10교구인 은해사 및 70여개의 사찰이 있어 이곳의 산세를 증명해주고 있다.

영천 단음사는 총기 14년 인덕서원당을 개설하여 총기 19년 단음사로 개칭하고 총기 22년과 25년에 주위의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했다.

영천에 이시강보살님을 비롯한 다섯분이 대구 개천사 교도로 다니다가 영천에 총지중 사원이 있었으면 하는 사원을 세우고 불공을 하여 당시 개천사 주교였던 수성정사와 삼정행 전수님이 종령님에게 재가를 받아 오늘날의 단음사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천 단음사 교도들은 대구 개천사를 큰집이라 부르곤 한다. 또한 일신행 전수님은 두분 스승님의 공덕을 잊지 않고 있다.

현 일신행 단음사 주교는 사회에서 적십자 봉사단과 새마을 봉사단 및 여성구급 봉사단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여 공로패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불교총지중과 인연이 되어 현 포항 수인사에서 근무하다가 인덕서원당이 개설되면서 초대 주교로 발령을 받았다.

현 단음사 이설보살은 일신행 주교님의 끊임없는 7일, 49일, 100일 불공과 서원으로 여러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이곳에 절을 세워도 된다는 이웃들의 진정성과 동의는 일신행 주교님이 이웃 교도들과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 교도들의 119 단음사

따르릉 따르릉 급박한 전화벨소리에 잠을 깬다. 어제도 사원



의 어수선 한곳을 치우느라 밤 늦도록 일하다 잠이 들었는데... 피곤한 몸을 일으켜 시계를 본다. 새벽 2시다. 교도의 전화다. 여기 어디인데요 지금 우리 어린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급박한 전화. 바로 옷을 입고 이반혁 각자님을 깨워 차에 시동을 건다. 밖에는 몇 십년만에 함박눈으로 시내에 차는 한 대도 없다. 쌓인 눈에 차가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한다. 엉금엉금 기어가듯 교도집에 도착하여 어린이에게 따뜻한 물과 옴니반베움의 불공과 병원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다. 일신행 전수님은 교도들이 부르던 스승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철칙과 원칙이 있다.

이런 급박한 일은 초창기에 비일비재하여 마음놓고 편히 지내 본 적이 없다 하신다. 각자님은 자성일에 손수 운전을 하여 교도들을 모시고 왔다가 비래다 주곤하여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새 차가 십년이 넘은 차로 변해버렸다. 영천 단음사는 교도들의 119이다. 어려움이나 환자 일손이 필요하면 일신행 전수님과 이반혁 각자님은 모든일을 제쳐두고 달려간다. 어려운 환자들이 찾아오면 불공으로 해탈을 시켰으며 교도들 중에는 이러한 영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특히 많은 곳이 단음사이다.

### 수석과 분재를 사랑하는 각자님

단음사 앞뜰에는 정원에는 코끼리, 거북이, 두꺼비등 수많은 동물들과 소나무 벌나무 등 몇십년 묵은 고목들이 방방하는 사람들을 반겨준다.

잘 정돈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분재와 수석들이 단정히 놓여 있다. 이반혁 각자님은 몇해전부터 이지역 수석분재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런 분재와 수석을 구경오는 사람이 많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김없이 각자님의 불교강의가 이어진다. 육자진언 옴니반베움 진언의 묘의와 불교총지중에 대한 일장 연설을 듣지 않고서는 수석과 분재를 구경할 수 없다. 각자님은 "수석과 분재의 사랑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움과 멋을 찾는, 이것도 마음을 순화하고 정화하는 수행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가꾼다"며 자랑을 한다.



**불에 달구어진 돌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돌과 다름이 없어요. 중생들은 뜨거운 돌인지 모르고 만지려고 하는데 밀교진리를 공부하는 진인행자는 일반돌인지 뜨거운 돌인지 알고 중생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제도하는 것이 스승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일신행 큰 스승님**



일신행 스승님은 우주법계에 부처님은 항상 하시며 모든 유형 무형에 부처님의 법이 있으니 수석 분재를 바라보고 있으면 보는 이의 마음이 부처이면 부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마음이 교요하지 못하면 그 마음따라 형상을 달리하니 항상 법에 의지



해 수행 실천하는 것이 진인행자의 자제임을 강조하신다.

### 진·속이 돌이 아니듯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계시다

"수박은 모두 시퍼렇게 되어 있지. 그러나 수박의 속을 보면 검은 씨가 박혀 있고 붉은 색깔을 하고 있거든. 우리는 그 수박을 찌개해야 수박안이 붉은 색깔을 알 수 있거든 그러나 밀교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진인 수행자는 찌개보지 않고서도 수박안이



**“ 여는 사원이나 다름없었다. 크고 웅장한 사원이 있는가 하면 약간은 초라하고 허름하지만 옛날 시골의 사랑방 향기가 서린 사원이 있다. 도심속에 세련된 자태를 갖춘 사원은 아니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향기와 연꽃의 모습이 어려웠었다. 그곳이 바로 영천 단음사이다. ”**



붉다는 것을 알고 있어.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지..." 일신행 스승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젊은 사람이 종단에 많이 입문해서 하루하루 바뀌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젊은 생각이 많이 있어야 교세 발전과 교화에 세대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돈으로 발전하면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생기거든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도 소외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소외된 사람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해야합니다. 국가가 다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기관이 필요 한겁니다. 유치원, 놀이터, 청소년복지, 노인복지와 주민과 함께하는 종합 복지시설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고 일신행 전수님은 종단발전에 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또한 "스승의 품위와 위엄은 혼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도들과 이웃들이 만들어 준다"고 일침을 하신다

"스승이 교도이고 교도가 스승이고 스승과 교도는 하나이듯 우주법계는 진과 속이 돌이 아니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곁에 있다"는 말씀이 이어지신다

### 오순 도순 사람이 넘치는 사원

주교님과 각자님의 얼굴에는 건강하고 편안한 주름이 있다. 단음사 교도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한다. 농촌의 농번기는 일손이 모자라 어린이들의 손도 필요한 시기이다. 교도들이 일손이 필요하면 달려가 일손을 돕는다. 직접 모내기도 하고 직접 약도 치고 직접 풀도 매고 직접 추수도 거둔다. 또한 교도의 집에 애경사가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주교님은 단음사의 교도들 가정에 솥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교도와 스승님은 하나가 되어 정말 정과 사랑이 듬뿍한 사원,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일신행전수님과 이반혁 각자님은 15년 전부터 단음사 신도회를 조직하여 신정회의 의회단체와 단음사를 자기 집과 사원처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1대 신도회 회장 정태준, 2대 회장 서원수, 3대 현 회장 이영대 부회장 정정부 총무 전태규 각자님과 신정회 회장 황일분, 총무 김옥선 보살님은 단음사 교세발전과 총지중단 발전을 위한 모든 일을 몸으로 실천하고 도와 주는 특공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신행 전수님은 생활불교 실천불교는 생활과 수행이 돌이 아니고 하나임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마치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이 나타난 듯...

돌아오는 길에 한아름의 미소와 상쾌한 마음 환희심은 일신행 전수님의 법을 들었기 때문일까? 주 소 : 경북 영천시 내동 181-8 전화번호 : 054)333-0526



### 수행기

## 해탈의 희망



영천 단음사 송미향 보살

저는 8년이라는 세월을 몸이 아파 누워서 지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뚜렷하게 증세도 없이 고달픈 고통속에서 살았습니다. 한약도 많이 먹고 보고 병원에 가서 해 보았지만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신 곳도"여러번 해보았지만 효과는커녕 몸만 더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골 절에 부처님 전에 천배를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저는 정성을 다해 부처님 전에 천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더군요. "저보고 죽는다고요" 이제는 약도 없고 할 짓을 다 해봐도 안되니깐 저는 너무

나도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불교총지중 단음사 절에 인연이 되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단음사 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불공을 하고 부처님 전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처님전에 살려 달라고 메달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지나니깐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신기하게 내 몸이 달라졌습니다. 목 딱던 밥도 먹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병은 없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병이 낫아 갔습니다. 약도 안먹고 치료도 안했는데 부처님 전에 불공과 옴니반베움의 육자진언을 열심히 하고 나니가 몸이 해탈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새로 태

어난 기분으로 하루 하루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전 동네분들도 너무나 신기하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같이 똑같은 병으로 고통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까. 그 분은 교회에 몇 십년 동안 다니시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통 받지 마시고 우리 단음사 절에 나오면 해탈이 된다고

### 지심으로 육자진언 수행 몸과 마음 해탈로 이어져

권했습니다. 그 분도 지금 병이 해탈되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처님은 율리 단음사에 아니 우리들 마음속에 아니 온 우주에 부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려는 진실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